



추모행렬 ‘인산인해’ 지난 13일 오전 순천 송광사에서 열린 법정스님 다비식(荼毗式·화장식)을 지켜보기 위해 불교신자 등 참배객 3만여명이 법구를 뒤따르고 있다.

/순천=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불꽃 속에서 연꽃으로 피소서”

법정스님 송광사서 다비식 ... 추모객 3만명 몰려

“스님, 불 들어갑니다.”

관도 상여도, 염주도 없었다. 가사 한 장에 덮여있던 ‘맑은 스님’은 참나무 불길에 자신을 활활 태우고 먼길을 떠났다. 평생 무소유의 가르침을 전하고 실천한 스님의 마지막 모습은 ‘무소유의 완성’ 그 자체였다.

지난 13일 오전 순천 송광사에는 법정스님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보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전국 각지의 불교신자 등 추모객 3만여 명이 몰렸다.

하루 전 서울 길상사를 떠나 송광사 문수전에서 밤을 지낸 스님의 법구가 운구되기 시작한 것은 오전 10시 108번의 범종 소리와 함께였다. 법구는 길상사를 떠나던 모습 그대로였고, 30m 떨어진 대웅전 앞에서 부처님께 마지막 3배를 한 후 사찰 밖에

마련된 다비장으로 향했다.

200여 명의 스님이 그 뒤를 이었고 추모객들은 합장한 채 “나무아미타불”을 염불하면서 스님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봤다. 이어지는 행렬에는 아쉬움과 슬픔에 흐느끼는 이들이 있었다.

사찰을 나와 다비장으로 향하는 800m의 가파른 산 길. 만장도 꽃상여도 없이 법구는 세상의 인연을 뒤로한 채 40여 분 만에 다비장에 도착했다. 편백나무와 소나무가 백백이 숲을 이룬 다비장 주변에는 1만5천여 명의 추모객이 운집해 마치 ‘인간 만장’을 둘러싼 것처럼 보였다.

다비식엔 추모사, 조사(弔辭)도 없었다. 오전 11시30분 법구는 장작더미가 쌓인 인화대 위에 모셔진 후 다시 참나무로 덮였고, 이어 스님 10여

명이 “법정 대중사, 불 들어갑니다”라는 소리에 맞춰 불을 덩기자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에 내달려갔다.

거화 의식을 마친 후 길상사 주지 덕현스님은 대중을 향해 “스님을 잘못 모시고 이렇게 보내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불길 속에 계시지만 스님의 가르침은 연꽃처럼 불길 속에서 다시 피어날 것입니다”라며, 추모객들에게 “화중생연”(火中生蓮)을 같이 외치자고 말했다.

“화중생연”을 외친 후에도 추모객들은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다.

경남 진주시 왔다는 김노미(여·44)씨는 “스님을 길상사 법회에서 두 차례 견견했는데 너무 일찍 이별하게 돼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울먹였다.

/순천=김대성기자 bigkim@

■ 법정스님 후원으로 공부 초당대 문헌철 교수

“충장로 ‘베토벤’서 음악 감상하며 만나 딱한 사정 듣고 대학 4년 등록금 내줘”

법정 스님이 생전에 어려운 대학생을 몰래 돕는 등 사당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 알려져 다시 한번 모두의 가슴을 훈훈하게 하고 있다.

문헌철(45) 초당대 군사학과 교수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 포기할 뻔한 대학을 법정 스님의 도움으로 마칠 수 있었다.

문 교수와 법정 스님의 인연은 문 교수가 고교 2학년이던 198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시골중학교 졸업 후 도시 고교로 진학한 그는 중학생 때와 달리 성적이 오르지 않아 실의에 빠졌다고 한다.

이 때 학교 상담선생님이 한번 읽어보라고 주신 책이 법정 스님의 ‘산방한담’이었다.

가슴에 와닿는 말씀으로 가득한 책을 하룻밤에 독파한 그는 일주일 후에 광주시 충장로 클래식 음악감상실인 ‘베토벤’에 갔다. 마침 그곳에서 음악을 감상하고 있는 법정 스님을 우연히 만났다.

그는 스님에게 왜 출가했는지, 글을 언제 쓰는지 등을 물었고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이후 그는 한 달에 한두 차례 법정이 기거하던 송광사 불일암을 찾거나 베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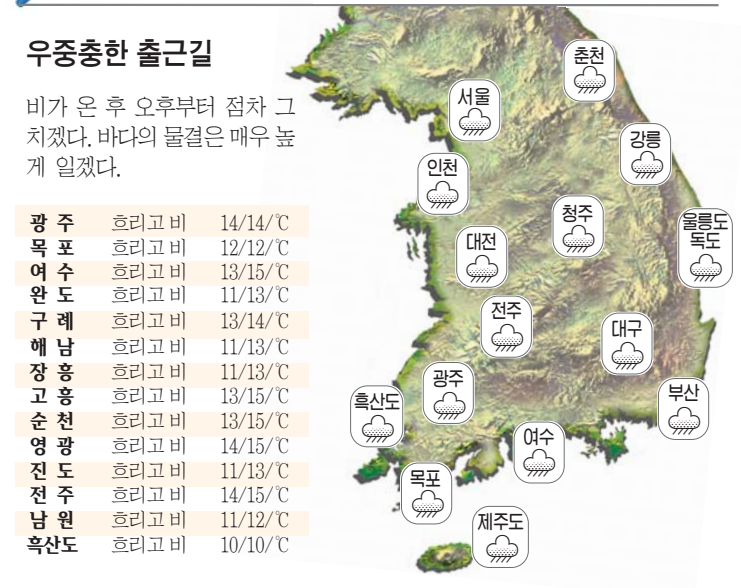
벤에서 함께 음악감상을 했다. 그러던 중 고 3때 교통사고로 2년간을 휴학하는 등 불행이 닥쳤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스님은 문 교수가 조산대 입학 후, 1학년 2학기 때부터 졸업까지 등록금을 해결해 주었다. 스님은 혹시나 자존심이 상할까봐 등록금 고지서를 ‘베토벤’ 카운터에 맡기라고 했고, 매번 스님이 등록금을 내주었다.

법정의 다비 절차를 끝까지 지켜보았던 문헌철 교수는 “저는 가톨릭 신자였지만 스님께선 종교를 초월하고 조건없이 사람과 사물을 바라보신 선승이셨다”며 심오한 뜻을 다시 기렸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6시 44분 해질 18시 40분 달돋이 06시 03분 달질 18시 13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광주	호리고 비	14/14℃	충청	호리고 비
포항	호리고 비	12/12℃	경북	호리고 비
대구	호리고 비	13/15℃	충남	호리고 비
부산	호리고 비	11/13℃	경남	호리고 비
제주	호리고 비	13/14℃	전북	호리고 비
전남	호리고 비	11/13℃	전남	호리고 비
충북	호리고 비	11/13℃	충북	호리고 비
충남	호리고 비	13/15℃	충남	호리고 비
경북	호리고 비	14/15℃	경북	호리고 비
경남	호리고 비	11/13℃	경남	호리고 비
전북	호리고 비	14/15℃	전북	호리고 비
전남	호리고 비	11/12℃	전남	호리고 비
제주	호리고 비	10/10℃	제주	호리고 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지외선지수	식중독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남~남서	2.0~4.0m	1	주의
남해 서부 앞바다	남~남서	3.0~4.0m	1	주의
남해 서부 앞바다	남~남서	3.0~5.0m	1	주의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지외선지수	식중독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서~북서	2.0~4.0m	1	주의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2.0~4.0m	1	주의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3.0~4.0m	1	주의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날짜	16(화)	17(수)	18(목)	19(금)
날씨	☀	☀	☀	☀
최저/최고	2/8	-1/11	4/10	1/13

◇주간날씨 기상안전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오늘 축축한 봄비 ... 강풍 ‘쌀쌀’

내일은 반짝추위에 황사

15일 광주·전남에는 강풍을 동반한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된다. 해상에선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다의 물결이 2.0~5.0m로 높게 일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5일 광주·전남은 돌풍을 동반한 많은 양의 비가 내리다가 낮부터 점차 그칠 것”이라고 14일 예보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20~60mm. 기상청은 이날 새벽에 여수 등 남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1~14도, 낮 최고기온은 12~15도. 기상청은 비가 그친 뒤 16일부터 반짝 추위와 함께 황사가 찾아올 것으로 내다봤다. 16일 광주의 기온은 2~8도로, 전날보다 큰 폭으로 떨어진 가운데 바람도 거세게 불 것으로 보여 종일 추위가 계속될 전망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국내로트부터
국내로트부터
국내로트부터
국내로트부터

제주도
제주도
제주도
제주도

일본 관광
일본 관광
일본 관광
일본 관광

이태리 가구 50%
이태리 가구 50%
이태리 가구 50%
이태리 가구 50%

2년만의 빅세일
2년만의 빅세일
2년만의 빅세일
2년만의 빅세일

CASATO
CASATO
CASATO
CASATO

수동과 가치가 UP
수동과 가치가 UP
수동과 가치가 UP
수동과 가치가 UP

IPATG 하이브리드 외벽방수 리모델링
IPATG 하이브리드 외벽방수 리모델링
IPATG 하이브리드 외벽방수 리모델링
IPATG 하이브리드 외벽방수 리모델링

577-8444
577-8444
577-8444
577-8444